

컴 · 퓨 · 터 · 의 · 세 · 계

■ 평평한 컴퓨터 모듈라 이그제큐티브 데스크패드



기존관념을 탈피한 새로운 디자인의 멀티미디어, 모듈라 이그제큐티브 데스크패드 (Modula Executive Deskpad)를 사용하게 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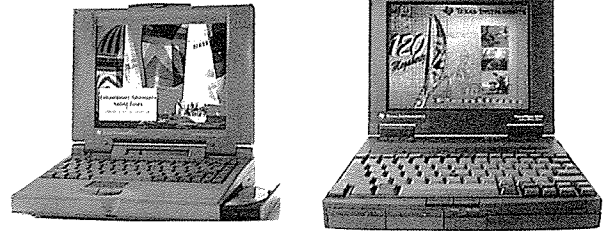
으로써 더이상 책상 위의 지저분한 케이블을 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유아원생의 스케치북과 유사한 이 제품은 얇고 깔끔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데스크패드이다. 10.4인치 컬러 LCD 터치 스크린방식의 모니터와 스피커 그리고 마이크로폰이 장착되어 있다.

모든 케이블 포트는 이 제품의 뒷면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눈에는 데스크패드 이외의 잡다한 것들은 볼 수가 없어 작업대 위의 환경은 깔끔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제품의 단점이라면 수평의 모니터 화면을 읽기가 다소 불편하다는 것이지만 책상 위가 모니터 등으로 복잡해지는 것을 원치 않는 사용자에게는 인기있는 상품이 될 것이다.

도스와 윈도 3.1, 95를 지원하며 가격은 3천2백50달러이고 소스 이노베이션사(Source Innovations)에서 시판하고 있다.

■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노트북 익스텐샤, 트래블메이트

반도체그룹 TI사가 국내 선경 유통망을 통해 고품질의 펜티엄 프로세서급 컬러 멀티미디어 노트북 2종을 국내에 공급한다. TI의 익스텐샤 시리즈는 배터리 사용시간을 2.5시간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고성능 NiHM 배터리 기술을 활용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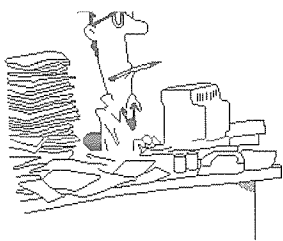


고, 대용량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SVGA, LCD 스크린 및 최첨단의 CD롬과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을 갖추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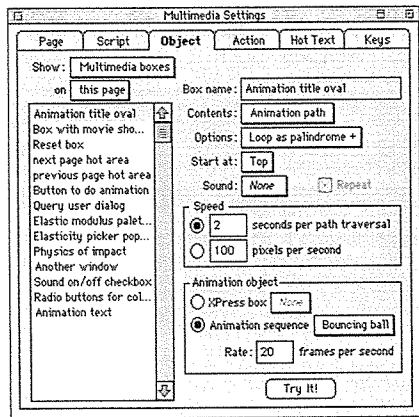
‘트래블메이트 5270T’는 인텔의 고성능120MHz펜티엄 프로세서와 PCI 버스구조, 11.3인치 수퍼 VGA로 6천5백종류의 컬러 디스플레이 및 2MB 비디오 램을 갖추고 있으며 펜티엄급 노트북 가운데 최장인 5시간까지 배터리를 사용할 수 있다. 또 1.2GB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및 1.44MB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용량을 가지고 있다. 32MB까지 확장시킬 수 있으며 64Mbit D램 메모리에서는 104MB까지 확장이 가능한 8MB램 표준이 장착되어 있다.

익스텐샤 및 트래블메이트 모델은 16비트 사운드, 마이크로 폼과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패키지로 선보이고 있으며, 특히 익스텐샤시리즈에는 사용자가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운드 블러스터와 프로 기능이 장착되어 있다. 그밖에 WAN 및 MIDI와 같은 오디오는 어떤 화일이나 서류와도 그 기능이 가능하고 익스텐샤의 AVI 비디오 화일로는 음악, 특수효과 또는 특수한 방식의 내레이션 처리 등이 가능하다.

항 목	트래블메이트 5270ST	익스텐샤 570CDT
프로세서	Pentium 120MHz	Pentium 100MHz
램	8MB 스탠다드, 104MB확장 가능	8MB 스탠다드, 40MB확장 가능
하드 드라이브	1.2GB HDD	1.2GB 이동 HDD
스크린	11.3인치 SVGA컬러	10.4인치 SVGA TFT
무 게	6.7파운드	6.4파운드
가격(부가세별도)	449만원	349만원



■ 웹용 멀티미디어 작성을 퀴크이미디어



DTP소프트웨어로 유명한 미국 퀴크사는 멀티미디어 애플리케이션과 웹 사이트용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작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퀴크 이미지

(QuarkImmedia)를 발표했다. 퀴크이미디어 (QuarkImmedia)는 두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 퀴크이미디어 디자인 툴(QuarkImmedia Design Tool) :

퀴크엑스프레스(QuarkXPress)를 사용자라면 배운 지식을 그대로 살려 전자출판물 제작은 물론 멀티미디어 콘텐츠를 작성할때 유용하며, 영업, 마케팅 프리젠테이션(presentation) 및 게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즉 퀴크엑스프레스로 페이지 레이아웃을 만들 때와 똑같은 표현력을 구사해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퀴크이미디어는 퀴크엑스프레스 3.32 이상을 갖추어야 한다.

- 퀴크이미디어 뷰어(QuarkImmedia Viewer) :

퀴크이미디어 디자인 툴로 작성한 것을 보여주는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인터넷상에서 퀴크이미디어로 디자인된 것을 액세스(access)할 수 있다. 퀴크이미디어 뷰어는 파워 매킨토시와 윈도 환경에서 사용 가능하다. 퀴크이미디어는 퀴크엑스프레스에 멀티미디어 기능을 더함으로써 퀴크엑스프레스로 페이지 레이아웃을 만들 때와 똑같은 표현력을 구사해 멀티미디어 데이터(비디오, 사운드, 애니메이션)를 제거할 수 있다. 자신의 데이터를 저장, 처리, 출력할 수 있으며 인터넷 월드와이드웹(WWW)에 적합한 포맷을 구성할 수 있다. 256컬러 모니터, 시스템 7.0 이상을 요구하는 퀴크이미디어 베타판은 95년부터 발매되고 있으며 정품은 곧 출시될 예정이다.

■ 인터넷 전자우편을 통해 감염되는 신종 바이러스

'마이크로 소프트 워드 매크로 바이러스'라는 긴 이름이 붙은 이 바이러스가 올해 미국 기업들에게 수십억달러의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 바이러스는 윈도 3.1, 윈도 95, 윈도 NT, 그리고 맥 OS에서 사용하는 마이크로 소프트 워드 2.0 이상의 문서를 감염시킨다. 이들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자우편을 통해 다른 곳으로 옮겨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등장했던 바이러스와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이들은 또한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고 감염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감을 잡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호스트 플랫폼에서 회사의 기반시설로 들어가는 포트를 찾아낼 정도로 창조적인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한다. 작년 8월에 등장한 이 바이러스는 현재 가장 흔한 컴퓨터 바이러스로 자리를 잡았는데 그 감염 형태와 증상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름	내 용
컨셉트	대규모 워드 문서의 인쇄 및 저장 기능에 영향을 준다. "페이로드" 매크로에는 "그만하면 내 말을 알아들겠지"라는 메시지가 포함된다.
뉴클리어	일부 인쇄된 문서 끝에 "태평양에서의 모든 프랑스 핵무기 실험을 중지하라"는 메시지가 나타난다.
포맷C	하드 드라이브의 모든 파일을 삭제한다
HOT	워드 문서를 열면 그 문서가 삭제된다.
DMV	시험 바이러스처럼 작성돼 위험을 제기하지는 않지만 시스템이 이 바이러스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사용자들에게 바이러스의 행동을 통보한다.
컬러	윈도우즈 색상 설정을 아무렇게나 선택된 색상으로 바꾼다.
ATOM	12월 13일에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들을 지운다.

그러나 이 바이러스를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다. 온 테크놀로지(On Technology), 시만텍(Symantec), 체이엔 소프트웨어(Cheyenne Software), 맥 카피(McAfee) 등 바이러스 퇴치 전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 바이러스 예방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또한 마이크로 소프트사는 자사에서 개발한 바이러스 예방 프로그램을 웹 사이트에 올려놓고 이를 무료로 다운 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삼보컴퓨터 드림시스

삼보컴퓨터가 국내 최초로 3D게임과 3D사운드, CCFE, TTS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멀티미디어 PC인 트라이젼 드림시스 II를 발표했다. T550, T650, T750 등 3가지 모델로 이뤄진 드림시스II의 기본 사양은 펜티엄 133/150/166MHz, 기본 메모리 16~32MB 비디오 메모리 2MB, 하드디스크 1.2~2GB, 캐시 메모리 256KB 등이다.

특히 삼보컴퓨터가 드림시스 II의 주력 기종으로 내세우는 T750은 VGA, 소프트웨어 MPEG, TV수신, 3D그래픽 가속기, 비디오 오버레이 통합보드, 16비트 3차원 SRS 사운드 카드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외국어 공부에 필요한 CCFE(Closed Coation For Education)소프트웨어와 문자 데이터를 음성으로 읽어주는 TTS(Text To Sound)기능을 내장



하고 있다. PC화상통신을 지원하는 28,800 DSVD팩스모뎀, 인터넷 웹브라우저인 MS 익스플로러 2.0, 아이네트의 인터넷 한달 무료 사용권을 제공한다.

이밖에 오디오, CD, MIDI 등을 플레이할 수 있는 오디오 랙(Audio Rack), 작곡 및 편곡을 할 수 있는 뮤직 라이트 등 전문 음악가용 사운드 소프트웨어를 갖추고 있다.

트라이젼 드림시스 II T550, T650, T750의 가격은 부가세, 모니터 별도라 각각 2백62만원, 2백90만원, 3백25만원이다.

■ 인터넷으로 케이블TV 프로그램 생중계

케이블 TV를 시청하지 않는 사용자라도 별도의 장비없이

인터넷으로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아이네트기술은 지난 6월, 케이블TV 프로그램을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Internet@HOME서비스를 개시했다.

expo.iworld.net에서 볼 수 있는 이 서비스는 케이블 TV인 터넷 생중계 서비스와 실시간 비디오 전송 기술을 바탕으로 한 온 - 디맨드(On Demand, 주문형) 서비스라는 점이 특이할 만하다.

비디오에서는 스트림웍스(Streamworks), 오디오에서는 리얼오디오 등의 기술을 사용하여 이용자들은 보고 싶은 동영상 정보를 바로 볼 수 있게 된다. 제공되는 프로그램은 케이블 뉴스채널인 YTN, 교육채널 마이TV, 아이월드의 가요베스트 10과 게임랜드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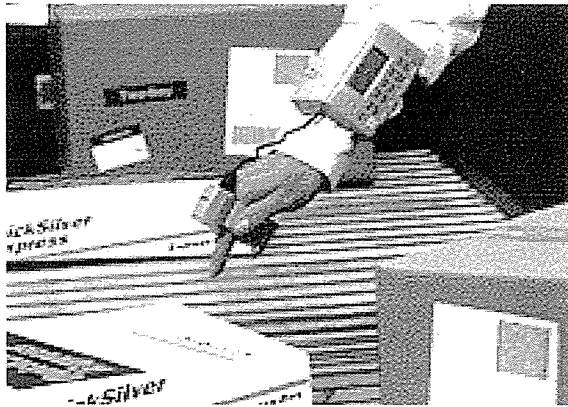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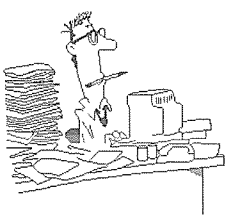
아이네트기술은 인터넷을 통한 CATV 프로그램 생중계를 7월 1일부터 개막된 정보엑스포 '96에서도 선보이고 있다.

■ 심볼 테크놀로지스 바코드 스캐너 WS1000

생산성 향상에 큰 몫을 담당하게 될 WS1000은 인체환경공학에 기반을 두고 디자인된 바코드 스캐너이다.

심볼 테크놀로지스사가 개발한 바코드 스캐너 WS1000은 손가락과 팔에 썬위 사용하기 때문에 읽는 속도도 빠르며 조작하기가 편리하다.

이 제품은 두개의 별도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는 검지에 끼울 수 있는 48g의 RS1링 스캐너(Ring Scanner). 왼손잡이이건 오른손잡이이건 상관없이 검지 손가락에 끼워서 엄지 손가락으로 손바닥을 향해 누르면 작동을 하게 되는 이



제품은 10cm에서 최고 76cm까지 스캔할 수 있으며 상태가 좋지 않은 바코드를 읽는 성능도 뛰어나다.

또한 9kg 이하의 압력에서는 절대 부러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디자인되어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손목에 부착하는 255g의 DOS호환 마이크로 컴퓨터 WU1000이다. WU1000은 640KB 메모리, 512KB의 비휘발성 메모리, 4줄 내지 8줄의 20문자 표기, 27개의 영문/숫자 키보드로 구성되어 있다.

최대 8시간 작동할 수 있는 리튬 이온 배터리 팩, 그리고 실시간 양방향 무선 데이터 통신을 위한 심볼 스펙트럼 원(One) 무선 카드를 갖추고 있다. 가격은 3천4백95달러이다.

■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

5~6천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사업자로서 삼보·한전 등이 참여한 두루네트(THRU NET)와 송유관공사의 대주주인 지엔지텔레콤이 선정되었다.

한전은 자가 통신망을 위해 전국에 설치해 놓은 광케이블을 활용하면 별다른 추가 투자없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래 전부터 통신사업 진출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한전은 전국 CATV망의 60% 가량을 소유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국내 1천2백만 가구중 5백20만 가구를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며, 길이로 보면 총 2만6천Km에 이른다.

아직은 두루네트 등 기간통신사업자에게만 회선을 임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두루네트는 이렇게 임차한 회선을 현행법상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일반 VAN사업자들에게 재

임대할 수 있다. 따라서 경쟁효과 창출로 기존 KT 독점시 형성된 회선비용이 절반에 가까운 가격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또한 한전이 최근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는 CATV망을 이용한 각종 부가서비스가 허가된 한국글로벌텔레콤에도 4.9% 지분 참여를 함으로써 그 가능성을 짚게 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전국 CATV망의 60% 가량을 소유하고 있는 한전이 데이콤을 제치고 한통의 경쟁자로 등장할 가능성마저도 있다고 관계자들은 분석한다.

두루네트는 한전 통신사업실과 삼보컴퓨터 시스템사업부 인력을 중심으로 이달중 법인을 가동할 예정이며, 지엔지텔레콤도 이달 초 백명의 인원으로 법인을 정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신규사업자용 장비수요 규모가 총 9백48억원으로 알려진 이 사업에는 이미 관련설비는 LG, 삼성 등 국내업체에서 자체 개발하거나 또는 기술제휴를 통해서 국산을 공급 중이다.

따라서 관련산업 파급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인력수급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 레인지스타(RangeStar Inc.) 안테나 기술개발

지금까지는 디지털 단말기에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고자 하는 대부분의 노력을 셀룰러 단말기에 쏟아부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신생 기업인 레인지스타사는 무선 통신기기의 서비스 수신율을 50%에서 최고 100%까지 확장시키고, 보청기나 심장박동기(페이스 메이커) 등에 대한 전파간섭을 제거하는 새로운 안테나 테크놀로지를 개발했다.

이 새로운 안테나기술은 모든 주파수대에서 아주 효과적이며 셀룰러와 개인통신서비스 단말기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레인지스타의 신 기술은 기존 셀룰러폰에 내장된 표준 안테나보다 수신 시그널 강도 표시치(RSSI: Received Signal Strength Indicator)가 100% 혹은 7.34dB 이상까지 증가시킨다고 회사측은 주장한다.

또 서비스 영역의 확장으로 고객들이 받지 못하는 전화 수를 적게 하는 것은 물론 깨끗한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며, 충전 배터리 하나로 50분을 더 통화할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한다. 특히 전파 수신 범위의 확장으로 가입자들의 단말기 사용



비용을 절약되도록 하고 통신의 질을 향상시키며, 전파 혼신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전파 방해를 제거해 주는 등의 레인지스타 안테나 기술은 관련 업계에 잔잔한 파장을 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 회사는 레인지스타 안테나가 유통업체, 제조업체, 통신사업자, 안테나 제조회사 등 모든 분야에서 주문이 계속하여 쇄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처음으로 무선 단말기 시장에 진입하려고 준비중인 회사들은 기존 단말기 업체와의 차별화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이런 새로운 안테나기술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들 역시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레인지스타의 안테나를 사용하여 단말기를 제조하도록 유도하고 그 기술이 산업 표준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레인지스타사는 샌프란시스코 해안지역, 다운타운, 바닷가, 나무로 우거진 지역 등에서 필드 테스트를 실시하여 도시나 근교, 시골 등의 환경을 견뎌낼 수 있는 지를 입증하기 위한 테스트를 하고 있다.

■ 고객지원 소프트웨어

『새로운 고객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오면 회사의 엔지니어는 고객이 말하는대로 문제를 설명하는 파일을 만든다. 엔지니어의 데스크톱에 있는 팝업 스크린에는 이미 고객의 네트워크 구성도가 뜬다.

만일 엔지니어가 특정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면 컴퓨터는 팀 매니저에게 경보를 띄우고 매니저는 키보드를 몇 번 눌러서 그 사례를 불러들인다. 문제가 해결되면 매니저는 코멘트를 붙이고 그 사례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

다음 번에 그 고객이 전화를 걸면 전화를 받은 서비스 엔지니어는 그 사례를 불러와 참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클래리파리 프로그램은 이와 별도로 고객의 통화를 패턴별 데이터베이스를 참조해 분류하고 재발생한 문제는 품질관리팀에 보고한다.』 이상은 마이크로소프트의 고객 서비스구현 과정이다.

리메디(Remedy)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모토로라의 한 부서는 그 부서의 PC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을 돕는데 고객응대시스템이 많이 사용된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 결과 지금은 더 많은 소프트웨어가 새로운 PC에 미리 설치되어 들어온다고 한다.

2년 전에 아마하사의 미국 법인의 고객 서비스 핫라인에는 통화가 몰리면서 통화자 가운데 35%가 응답을 받기 전에 전화걸기를 포기해야 했다. 아마하의 가장 큰 고객인 NBC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고객의 불평에 직면한 아마하는 전화 지원 스텝을 늘리는 동시에 캘리포니아 에머리빌에 있는 조그마한 소프트웨어업체인 스코퍼스(Scopus)텔레포니 시스템사의 스코퍼스 소프트웨어가 걸려오는 통화를 인식하고 그것을 신속하게 NBC의 과거 질문 및 불평에 대한 세부 데이터와 함께 엔지니어에게 전달한다. 스코퍼스 패키지는 문제의 발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품질 향상, 매출 증가에도 기여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들은 각 고객들이 한가지 문제를 한번만 설명하면 되기 때문에 800번 서비스 회선에 쓰는 시간을 줄여준다. 더욱 중요한 것은 모든 통화내용과 함께 고객 질의와 불만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는 것이다. 고객 서비스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웹 브라우징 프로그램의 발전과 함께 기업들이 전화와 컴퓨터 시스템을 더 긴밀하게 통합하기 시작함에 따라 더 큰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령 올해 말 정도면 문제가 생긴 PC 소유자들은 제조업체의 웹 사이트에 직접 연결해 관련 항목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일 그래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음성 라인을 활성화하는 화면상의 버튼을 눌러 직접 직원과 이야기할 수 있다. 담당 직원은 컴퓨터의 팝업 스크린에 올라오는 고객의 문제 해결 과정을 살펴 보면서 응답에 대응할 수 있다.

인터넷이 완전히 정착되면 고객 응답과 서비스는 인터넷에서 가장 으뜸가는 애플리케이션이 될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수백개의 기업들에게서 비슷한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힘입어 고객응대소프트웨어는 대기업에서 가장 관심을 갖는 분야로 자리잡고 있다고 가트너는 분석한다. 그리고 웹의 확산 역시 이 소프트웨어의 도입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①